

# 이 유

## 1. 당사자 주장

### 가. 신청인의 주장

- 2018년 1월경부터 옆집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빌라가 들어서는데 공사가 진행되었음
- 공사과정에서 분진, 소음,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던 중 00빌리지 소유인 마당에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는 건물피해까지 발생하여 공사현장 책임자를 만나보았으나, 자신들의 피해로 인정하지 못하지만 금이 간 곳은 시멘트로 메꾸어만 주겠다는 미흡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음
- 피해자인 그린빌 측 사람들은 안전성에 불안함을 느끼기에 이 문제를 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는 바임
- 공사과정에서 진동으로 마당에 균열이 있었으나,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, 시공사 측의 균열보수에 대해 안심이 안되며, 마당 부분의 침하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불안한 상태임
- 시공사 측의 성의 있는 보수 보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함

### 나. 피신청인의 주장

- 최대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, 분진, 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가림막 및 공사시작 시간을 07시, 08시에 시작하였음
- 큰 소음이 나는 작업에 대해서는 아침에 작업을 하지 않고 점심시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였음
-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적업도중 작은 암이 나와도 코아라는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음

- 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주장과 관련하여, 공사 이전부터 마당의 균열은 있었으며, 침하현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으로 담장과 바닥의 연결부분이 이전부터 들뜸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침하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임
- 다만 그간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준 부분을 조금이나마 배려코자 합의금을 제시하며, 신청인의 무리한 요구에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

## 2. 사실조사 결과

### 가. 분쟁지역 현황

- 신청인 주택은 00로(왕복2차선)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,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부지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측면 배치 및 신청인 거주 주택 후면과 접하고 있어 정온한 환경은 아님

### 나. 신청인 건물현황

- 건 물 명 : 0000빌리지
- 용도지역 : 제3종일반주거지역
- 연 면 적 : 1,389.21  $m^2$
- 규 모 : 지하1층, 지상4층(13세대)
- 주 용 도 : 연립주택
- 구 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
- 사용승인 : 1995.12.26

### 다. 피신청인 공사현황

- 공 사 명 :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
- 연 면 적 : 590.06  $m^2$  (14세대)
- 규 모 : 지하1층, 지상5층  
(지하1~지상2층 : 근린생활시설, 지상3~5층 : 주택)
- 공사기간 : 2017.12.18.~2018.8.30

- 시 공 사 : (주)00종합건설
- 사용승인 : 2018. 8.30

## 라.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·점검내용

- 관할 구청(건축과, 환경과)에 소음 등의 피해민원이 3차례 제기되어 소음관리 철저 등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음
-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: 비규제
- 피해저감 대책
  - 방진막 설치,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

## 3.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

### 가. 건물 피해 평가

- 현지조사와 기 제출되어진 관련 자료 및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평가하였음
- 투입장비 중 가장 진동레벨이 높은 건설장비에 의한 신청인 거주지의 진동도를 예측하였음
- 피신청인의 현장에서 굴착공사 시 사용한 장비는 백호, 덤프, 오거드릴, 컴프레샤 등이며
- 굴착면과의 최단이격거리는 약 2.0m에서 천공기(오거드릴)를 사용했을 때의 최대진동속도(VL)는 한국환경정책 연구평가원의 추정식을 사용하면 0.72cm/sec(kine)임

### 나. 소음피해 평가

#### 1) 소음도

-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및 현장조사(전문가 조사결과 포함) 결과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

-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을 바탕으로 각 공정별로 주요 소음원인 건설장비의 투입일수를 산출하며, 공종별로 투입된 건설장비의 소음도는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활용함
- 소음피해 평가 종합의견
  - 피신청인의 공종별 장비투입내역에 근거하여 공종별 장비가동 시 개별 장비가 발생하는 평균 소음도에 따라 신청인 건물까지 전달되는 합성 소음도를 검토한 결과 67.9dB(A)에서 73.9dB(A)로 검토되었음

#### 다. 먼지피해 평가

- 비산먼지의 확산피해를 저감하고자 철거 및 건축공사 시 외벽에 방진막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, 통상적으로 이들 저감시설의 운용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먼지발생이나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,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로 인해 건강상 및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

### 4. 판 단

- 공사로 인한 추정진동속도는 굴착공사시에는 최대 0.72cm/sec로, 소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위인 0.8cm/sec미만 이므로, 신청인 건물이 피신청인 공사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소음피해의 경우 신청인 사업장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73.9dB(A)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(A)를 8.9dB(A)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.
- 먼지피해는 통상의 공사 사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·운영한 점을 고려해 볼 때, 먼지로 인한 건강상·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
## 5. 배상수준 검토

### 가. 배상책임

- 피신청인 (주)00종합건설은 『환경정책기본법』 제7조(오염원인자 책임원칙) 및 『환경정책기본법』 제44조(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)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.

### 나. 배상범위

-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(A)를 초과한 신청인 000 등 24명에게 배상한다.
- 피신청인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교섭경과 및 공사부지의 협소로 도로상에 펌프카 등 장비운용으로 소음피해 저감방안의 어려운 입지여건 등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액의 90%를 적용한다.

### 다. 배상액

-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4,428,000원, 재정신청 수수료 13,200원을 추가하여 합계 4,441,200원이며. 1인당 배상액은 185,050원이다.

## 6. 결 론

-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, 관련서류, 전문가 의견,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